<https://enterprise.kt.com/bt/dxstory/658.do>

에세이 원문

KT 엔터프라이즈

**제목: 움직임의 디지탈화, 서비스로의 모빌리티 MaaS**

**[서론]**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소유'에서 '공유'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의 이동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 외에 여러 가지 대체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송 산업에서 온디멘드 서비스((On-Demand,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통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도보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이동한 후 몇 가지 교통수단으로 환승하여 이동하는데, 최근에는 택시 외에 렌터카와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른 카셰어링과 '타다'와 같은 라이드셰어링 등을 이용하고 있죠.

교통 분야, 특히 수송 분야에서 개인의 이동성을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 낸다는 점이 “기존에 요금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다른 게 뭐지?”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이 아닌 이상, 대중교통에서는 항상 '환승'이라는 불편함을 피할 수가 없죠.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비행기 등 대량생산 체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곳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대중’ 교통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오롯이 본인이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화가 가능해진 스마트폰 세상에서는 대중교통 역시 개인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형 모빌리티 MaaS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로 각광받으면서 하나의 유행어처럼 통용되고 있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처럼, 교통 분야에서도 스마트폰 앱과 접목하여 ‘서비스로서의 ○○○’로 표현되는 시장이 출현합니다. 바로 'MaaS(Mobility as a Service, 마스)'입니다.

MaaS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수송수단의 운행정보를 통합한, 하나의 일체화된 수송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동성, 바꿔 말해 여정(Journey)은 출퇴근이 될 수도 있고 2박 3일의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동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식사, 숙박, 여가, 쇼핑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연계됩니다. 이러한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기존에는 없던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거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확장성 때문에 이동성 부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먹거리로 이미 많은 업체가 MaaS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종의 사업들이 모이는 접점, MaaS 서비스 사례]**

자동차 제조사와 교통수송 사업자는 플랫폼 영역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교통수송 영역과 자율주행 제조사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제 및 핀테크 사업자와 여행업 사업자 역시 교통수송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의 사업들이 모이는 그 접점이 바로 MaaS인 것입니다.

KT 역시 일찌감치 MaaS 서비스 영역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의 공식파트너인 KT는 세계 최초 5G와 다양한 서비스를 발표했는데요, 이중 수송 분야에서 클라우드, 모바일 5G, IoT 기술을 집결한 MaaS 서비스 ‘Go PyeongChang’을 전 세계인들에게 선보인 것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DX로 통합하여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 택시,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올림픽 전용 수송수단뿐만 아니라 숙박, 관광정보까지 총망라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토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용 통합 결제/정산 플랫폼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9종의 교통수단을 편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강화학습을 통해 여정을 설계하고, 멀티모달 예약(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일련의 여정을 수립)과 결제를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교통 사업자와의 결제/정산은 블록체인으로 구현해 차세대 MaaS 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MaaS 사업의 성공 포인트 2가지]**

MaaS 사업의 성패는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가 다양한 교통수단의 DX화로 대기 시간과 환승을 최소화하는 ‘끊김 없는 이동성(Seamless Mobility)’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둘째가 각각의 교통수단을 연결한 멀티모달(Multi-modal) 여정의 예약과 결제를 한 번에 가능케 하는 ‘One Pay All Pass’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MaaS 플랫폼을 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교통사업자, 다양한 여행 및 숙박업체와의 제휴가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국내외 모빌리티 사업자들도 합종연횡을 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KT는 MaaS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차량 관제 및 BIS 등을 위한 IoT 통신 인프라, C-ITS, c-V2x 기반의 자율협력주행, GIS 등 교통DX 플랫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련 사업들을 리딩해 나아갈 것입니다.

**<뤼튼 요약본>**

이 에세이는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디지털화가 교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MaaS(Mobility as a Service)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MaaS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의 운행 정보를 통합하여 이동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MaaS는 개인화된 여정을 제공하며, 그 여정은 출근길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는 식사, 숙박, 쇼핑 등 다양한 생활 스타일과 연계되어 있으며, 개인화된 데이터를 축적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KT 엔터프라이즈는 MaaS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인 'Go PyeongChang'은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디지털로 통합하여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및 숙박과 관광 정보까지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MaaS 사업의 성패는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다양한 교통수단의 디지털화를 통해 '끊김 없는 이동성(Seamless Mobility)'을 보장해주고, 두번째로 각각의 교통수단을 연결하여 예약과 결제를 한 번에 가능케 하는 'One Pay All Pass'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